

# “우리는 데이터 사회의 실험실에 살고 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니혼게이지신문 데이터경제취재반 전선영 옮김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가 있다. 인터넷상 데이터를 모아 특정 인물의 행동 패턴은 물론 취미 등을 추정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기호, 생각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이 발달돼 있다.

인터넷 검색 이력, 자동차 주행 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는 돈을 움직이기도 한다. 개인은 물론 단체, 기업, 국가 등은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데이터 활용 여부에 따라 명과 암이 교차된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차별과 편견, 오류를 유발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데이터 정보로 인한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데이터 경제의 변화상을 추적 탐사한 니혼게이지신문 데이터경제취재반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연재한 기획 ‘데이터의 세기’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책으로 엮여졌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기술에 관한 통찰과 제안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직접 실험에 뛰어드는 심층 취재로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경제의 최신 동향도 살펴본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 진보가 가져올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데이터 경제는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일본 리쿠르트그룹 산하 취업 정보 사이트 ‘리쿠나비’가 세간의 질타



를 받은 일이 있다. 취업준비생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기업에 판매했던 것이다. 이들이 판매한 데이터는 단순 개인정보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데이터 알고리즘이 지원자 최종 입사 여부를 수치로 도출해 예측한 ‘내정사퇴율’이었다. 구직자가 어떤 회사의 채용 정보를 열람했는지 등을 분석해 최종 입사 여부를 수치로 도출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기업 또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리쿠나비에 넘겨주며 내정사퇴율 분석을 의뢰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직업안정법,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데이터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위헌성을 경고한 사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는 온갖 데이터가 넘쳐난다. 정보의 홍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공개 정보를 활용해 어디까지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시험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익명 정보에서 출발해 10시간 만에 개인을 특정했으며 6개월 분량의 행전까지 상세하게 알아냈다.

개인들은 데이터를 넘긴 기억도 없을 정도로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정보를 노출한다. 기업들은 공유는 물론 영입에 활용을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된 정보는 보이콧 같은 사기나 범죄에 악용돼 왔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안전과 존엄도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데이터 실험실을 이미지화 한 작품. <머스트리드북 제공>

데이터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세상의 가치는 수치화된다. 인공지능이 학력, 직업, 거주지 등 정보를 분석해 신용도를 산출하는 소코어링 기술은 대출, 채용 같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대출 서비스 ‘즈마신용’이 그 같은 예다. 이용자의 신용도가 높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렌터카를 빌릴 때 보증금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은 편리함 이면엔 ‘비추일 슬럼’이라는 신 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 분석으로 취업, 대출과 같은 주요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수치화하고 평가하는 세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만약 그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빅데이터 시대, 개인의 안전과 존엄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책을 옮긴 전선영 번역가는 “데이터 세기에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졌겠지만 그 장밋빛 미래를 위해 개인이 희생된다면 분말전도”라며 “개인을 지키면서 편리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데이터의 세기에 필요한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머스트리드북·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액체 세대=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대담으로 엮었다. 2017년 바우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보다 60세 어린 이탈리아의 젊은 시인 토마스 레온치니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액체 사회’의 ‘아이들’을 살핀다. 책은 이들이 논의했던 신체에 변형을 초래하는 문신, 성형수술, 공격성, 사랑과 성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을 담았다. <이우출판·2만원>

▲언제나 길은 있다=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처음 지역 방송국 토크쇼에 출연했던 경험에서부터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느꼈던 깨달음과 함께,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일화들을 담았다. 책은 오프라 자신의 인생 원리에 대한 짧은 에세이 10편과, 디팩 초프라, 마이클 싱어, 조엘 오스틴 등 90여 명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6800원>

▲사는 게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 수업=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당신을 위해 ‘잘 사는 방법’에 관한 철학’을 담았다. 책은 에픽테토스,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등 세 명의 스토아 철학자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역경을 대처하는 방법,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인간으로서 바



르게 사는 법 등을 알려준다. <더퀘스트·1만3500원>  
▲하틀랜드=미국의 시골에 거주하는 가난한 백인 여성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 시골의 빈곤층으로 자란 저자는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가난의 고동스러운 문제들을 제시한다. ‘레드넥’ (미국 시골 지역의 저학력, 저소득 백인 농민들을 경멸하여 부르는 말) ‘화이트 트래시’ (백인 쓰레기, 빈민층 백인에 대한 욕설) 등 가난한 시골의 백인 여성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반비·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중2병이 아니라 우울증입니다=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제이콥 타워리는 ‘중2병’이라서 그래!라며 치부해 왔던 것들의 원인이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밝히면서 청소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운동법, 생각의 왜곡을 바로잡는 법까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이 담겨 있다. <뜨인돌출판사·1만3000원>

▲모두의 개=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되었으나 하루 만에 혼자 택시에 태워 다시 버려진 웰시코기 치림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이다. 작가는 우연히 다시 유기견이 되었던 치림이의 임시 보호자가 되었다가 실제 입양을 하게 되었고, 치림이와 가족이 되기 과정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이야기를 치림이 입장에서 그렸다. 책의 말미에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개에게!’ 라는 작가의 편지도 담겼다. <밝은미래·1만3000원>

▲사이클 선수가 될 거야!= 약 100년 전 여자들은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시대에서 주인공 알폰시나는 동네 소녀들과 자전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이겼다. 스스로 자전거에 소질이 있다고 느낀 알폰시나는 우연한 기회에 유럽에 여자 사이클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이클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이후 13살 때 처음 나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여자로서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교육·1만3000원>



# 추억·한숨·황홀... 보통사람이 겪는 ‘반전이야기’

## 내 생애 가장 큰 축복

성석제 지음

소설가 성석제는 우리 시대의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꼽힌다. 그가 펴낸 소설들은 이야기가 술술 읽히며 특유의 ‘글맛’도 느끼게 해준다.

장·단편을 통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의 장기가 발휘되는 장르 중 하나가 단편보다 짧은 초단편 소설이다. 작가 특유의 재기발랄한 문체와 스토리가 빛을 발한다. 흔히 엽편(葉篇) 소설이라 불리는 초단편소설은 ‘나뭇잎 넓이 정도에 완결된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뜻이다. 손바닥 크기 분량의 소설을 뜻하



는 장편(掌篇)으로도 불리며 콩트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보통 책 5-6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이다. ‘그곳에는 어저구니들이 산다’, ‘재미나는 인생’, ‘변칙하는 황홀한 순간’ 등 짧은 소설집을 펴냈던 성석제가 신작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을 출간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문화교양지 월간 ‘샘터’에 ‘반남’을 주제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 짧은 소설집이다. 책에 등장하는 40편의 짧은 소설에는

사람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음식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등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상이 담겼다. 소설인듯, 수필인듯 써내려간 글에는 누군가의 추억과 한숨, 눈물, 웃음, 한숨, 황홀했던 순간이 담겼다.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담고 있다. 짧은 글을 읽다보면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무릎을 치게 되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한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에서는 군대에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라디오 일병 구하기’, 보복 운전에 얽힌 이야기 ‘오, 하필 그곳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오늘의 당신은 오직 어제가지만 가졌을 뿐’, ‘병 따기의 예술’, ‘원한

다면 달려주마’,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밤’, ‘아부다비의 보물섬’, ‘예쁜 누나 동창생’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기발한 스토리와 함께 성석제 글이 주는 매력은 특유의 해학과 풍자다. 때로는 익살맞고 의문스럽게까지 한 인물의 행동 하나, 짧은 대화 한 마디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특한 문체 역시 글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책의 내용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것만은 아니다. 읽다보면 촌철살인의 생각거리도 던져준다. 그래서 분명 편하게 읽었는데 읽고나면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팍팍해진 요즘, 위로와 웃음을 주는 이 짧은 소설들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부담없이 책장을 넘겨 보시길.

<샘터·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